

# 광주 동구, 사람 중심 인문도시로 거듭난다

### 살고 싶은 도시환경 만들기 지난해부터 모든 역량 집중 아카이브·인문산책길 조성 인문대학 운영·동아리 지원

광주시 동구가 주민간의 소통이 왕성한 인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동구가 생각하는 인문도시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사람들의 인문적 역량과 시각을 깨워 배려하는 이웃관계를 만들고 동구공동체의 문제를 서로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자치구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찾고 살고,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2018년 8월부터 인문도시 추진을 핵심 정책으로 설립하고 지난해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 동구는 30일 "주민간 소통이 사라지고 있는 동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들 스스로 역사가 스며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인문도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인문도시 기반 조성'과 '주민 인문역량 강화'이라는 2가지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도시 기반 조성'으로는 동구 인문산책길 조성(기복화)과 동구 아카이브(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인문산책길은 동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대표적인 인문자원을 발굴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문산책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대표적인 인문자원으로 지난 2년 오지호·문병란·이한열 등 광주의 의향·예향 인물이 있고, 충장동에는 흥학관 신문잡지중심 3·1 운동길 등 항일 운동 장소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학운동에선 최흥중·허백련·최원순 등의 인물이 활동했고, 동명동에는 광주 근대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광주형무소 터가 있는 점도 인문도시 구성의 강점으로 꼽는다.

동구는 올 하반기 사업으로 주민 문화해설사들을 위촉하고 교육을 운영하며(11월까지), 문병란 시인 자택을 기념공

간으로 조성(12월까지)할 계획이다.

아카이브 사업은 동구의 인문자산 및 문화 원형을 조사해 기록 및 계승해 인문정신에 기반한 지역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동구의 인물 1(최흥중 등 22명·흥학관)·2(김범수 등 15명·광주극장)를 제작했고, 총장로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총장로 오래된가게'와 학동재개발지역 마을 이야기를 담은 '학동 마을 이야기' 제작도 지원했다.

오는 12월에는 기존 제작된 동구의 인물 2를 책으로 발간해 동구의 주민들의 생활상을 인문자산으로 남길 예정이다.

동구는 또 '주민 인문역량 강화' 사업으로 ▲책 읽는 동구'를 위한 인문사업 추진 ▲인문대학 운영 ▲어르신 생애출판사업 ▲청소년 인문역량 강화사업 ▲인문동아리 ▲인문학계단 등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올해 책방거리 입점 및 활성화에 집중했던 책 읽는 동구를 위한 인문사업은 내달 중으로 독후감상문 공모전과 올해의 책 릴레이 독후활동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동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확립하고 있

는 인문대학도 명예교수단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어린이 인문학(9월 중), 동구 인문학(10월 중), 청소년 인문학(12월 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지역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 대상 사업으로는 오는 9월 인문 골든벨대회 등을 계획 중이다.

동구는 인문적 소양 함양은 물론 동구 인문도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인문 동아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독서토론, 인문강연, 문학탐방 등 16개 인문학 동아리들은 오는 9월 학술 발표회를 연다.

인문동아리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문학계단은 11월에 집담회를 개최해 인문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평가와 홍보 및 참여, 활동 유도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인문도시를 더 나은 동구공동체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주민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공동체를 위한 역량과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예비부부-예식업체간 갈등 풀었다

### 결혼식 7개월까지 연기 협조

### 예식업체 위약금 30~40% 감경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예비부부들과 예식업체간의 중재에 나서 상생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예식업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코로나19 예비부부 피해구제를 위한 사-예식업체-소비자단체 상생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라페스타, S타워웨딩컨벤션, 제아트, 워더스웨딩홀, 데케이웨딩컨벤션, 테일러웨딩홀, 까사디루체, 드메르웨딩홀, 홀리데이인호텔 웨딩시대, JS웨딩홀 10개 업체 대표 및 윤민하 광주예식업체협회 회장, 이영숙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박영희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시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광주시와 광주예식업체협회, 광주소비자단체는 코로나19 예비부부의 고통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예비부부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응적으로 합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상생 합의안 협약사항은 ▲결혼식 연기 요청 시 최대 7개월(내년 3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협조 ▲취소 요청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예식업체가 감경(30~40%)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최소 보증인원 감축 조정에 최대한 협조 ▲감경 인원에 대해 담례품을 제공하되 담례품 품질 향상에 최대한 협조 ▲거리두기 3단계 격상기간 중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위약금 없이 연기 협조 등이다.

광주예식업체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를 두 번이나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예식업체가 고통을 경감하고 나눔과 연대의 실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신 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예비부부들 입장에서 보면 협약 내용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예식업체도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음을 감안해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2020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모

### 9월21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 5명 내외 선정 운영자금 지원

광주시는 "중소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내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다. 광주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명 내외를 선정한다.

평가는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 실적, 고용 창출, 기술개발 분야 정량 평가를 비롯한 근로자 후생 복지, 노사 협력, 환경 개선, 봉사활동 분야 정성 평가 등으

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매년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추천을 원하는 기관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9월21일까지 광주시 기업육성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창균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집중호우 등 어려운 악재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인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천·영산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재개

### 9월 5일부터 매주 토·일

'강변 축 자전거 거점 터미널' (사진)이 오는 9월 5일부터 재운영된다.

광주시는 "혹서기 운영 중단된 광주천과 영산강변 자전거거리에 위치한 거점터미널 총 8곳을 다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점터미널은 교량 아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무료 정비, 공영자전거 대여, 자전거길 안내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거점터미널에는 자전거 전문가 2명이 배치되며,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거점터미널은 ▲용산교, 중앙대교, 동천교 등 광주천변 3곳 ▲첨단교, 여동대교, 산동교, 극락교, 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이며, 이 가운데 중앙대교, 동천교, 첨단교, 여동대교, 산동교 거점터미널 5곳에서는 공영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자전거 2만4460대가 무료 정비를 받는 등 광주천변과 영산강변 자

전거길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7월부터 상무지구 내 무인대여소 52곳에서 무인공영자전거 '타랑개' 200대를 시범 운영 중이다. 타랑개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회에 90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일일권(1000원)부터 1년권(3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광주시는 타랑개 시범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확대 운영 여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동구·서구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

### 2023년까지 17억여원 투입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동구와 서구가 선정돼 2023년까지 17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으로 주민 스스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민 편의 시설 구축, 생활 돌봄 프로그램, 취약 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동구는 도심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화된 지역인 산수1동과 계림1동을 중심으로 '마을 복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 권역에 마을 사랑채를 설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 생태계를 구축한다. 서구는 '사람 향기 가득한 농성골 이웃공동체 사업'을 실시, 노후한 농성1동에 협동조합 구성, 통합 돌봄, 공동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혁신, 보건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추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b>총 계</b>		<b>93</b>	<b>29</b>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